

# 다니엘서 - 열다섯 번째

## 다니엘서 2장 - 요약과 결론 제2부

Jeff Pippenger

2023-12-10

2023년 7월 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죽어 메마른 뼈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자신이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알린 것으로 상징되었다. 다니엘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엘리야의 사자를 대표하며, 엘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이해하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이미 저주 아래에 있음을 밝힌다.

이제 너희 제사장들아,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라기 2:1, 2.

베드로에 따르면, 마지막 날들의 "제사장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다. 그들은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내려왔을 때 "감추어진 책"을 먹은 이들이다. 그러나 말라기서에 따르면,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로운 살아 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라.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되,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고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보배이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걸림의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바위가 되었나니,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며,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공흠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흠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3-10.

"말세"의 "제사장들"은 "주께서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다. "이전에는" 그들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을 발견한 자들이다. 그 돌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며, 밀러파 운동의 "건축자들"이 1863년에 그것을 "배척"하였다. 밀러파의 "건축자들"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 동안 성전을 세웠으나, 그 후 1856년에 도래한 "일곱 때"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거부하기로 선택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호세아 4:6, 7.

마지막 때의 "제사장들"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재림주의의 옛 길로 다시 인도되었을 때 "일곱 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감추어진 책의 메시지를 맛보았고, 그것은 "귀중했다." 그러나 말라기는 말세의 제사장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며, 물론 "일곱 때"는 저주이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했기 때문에 "일곱 때"의 저주 아래에 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이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한다. 그 제물은 2020년 7월 18일에 대한 예언이었다.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향을 사르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크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상은 더럽혀졌고, 그 위에 있는 소산, 곧 그 먹을 것은 경멸할 만한 것이라' 하여 그것을 더럽혔느니라.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고 그것을 업신여겼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너희가 찢긴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드렸도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와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으면서 서원하고도 여호와께 흠 있는 것을 제사하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나는 큰 왕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두려워할 만한 이름이니라. 이제 제사장들아,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벌써 그것들을 저주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책망하고 너희 얼굴에 배설물, 곧 너희 엄숙한 절기의 희생의 배설물을 바를 것이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끌려 나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니, 이는 레위와의 나의 언약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라기 1:11-2:4.

레위와의 언약은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 중 짐승의 형상 시험에서 레위인들의 신실함을 상징한다. 말라기서에서 언약의 사자에 의해 정결케 되는 레위인들은 의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정결케 된다. 그 제물은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의 품성에 대한 메시지이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어둠이다.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가고 있다. 그분의 품성은 오해되고 곡해되어 왔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 기별은 비추는 영향과 구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분의 품성이 알려져야 한다. 세상의 어둠 속에 그분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은 말로 밝힌 사역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힘 있게 네 목소리를 높여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오실 것이요, 그의 팔이 그를 위하여 다스릴 것이요; 보라, 그의 상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일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이사야 40:9, 10.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에게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비로운 빛의 마지막 광선, 곧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과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드러내야 한다." Christ's Object Lessons, 415.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제물을 드렸다. 그 제물은 메시지를 상징하며, 2020년 7월 18일 내슈빌에서 나온 메시지는 더럽혀진 제물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주신 '더 이상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언적 명령을 무시한 반역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이었다.

또 내가 보니 바다 위와 땅 위에서 있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5, 6.

말라기 3장에서 레위인들로 상징된 "의의 제물"은 옛 시절의 제물과 같으며, 또한 하나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옛 시절"은 밀러파 역사에서 첫 번째 실망을 낳았던 그 메시지의 순수성을 나타낸다. 부패한 제물은 2020년 7월 18일의 부패한 메시지를 가리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병행되는 사건이다.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고, 금과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롭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이전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3, 4.

말라기에 지적된 '저주'는 엘리야가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가리킨다. 지금 깨어나고 있는 우리는 2020년 7월 18일에 관한 최악된 예언을 내세우며 드러낸 우리의 반역 속에서 '일곱 배'의 저주의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먹기로 선택할 예언적 방법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한다. 이 사실의 두 증거(다른 것들도 있지만)는 말라기가 제시한 오실 엘리야와 엘리야 자신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엘리야는 옳은 메시지와 방법론이 오직 하나뿐임을 분명히 밝혔다.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그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 말이 없으면 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1

말라기는 하나님의 십일조와 관련된 저주와 연관 지어, 마지막 엘리야가 나타나는 시기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처해 있는 '저주'를 지적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십일조의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려야 할 결정을 의미한다. 이미 자신들에게 임해 있는 저주를 제거하려면 '창고'가 어디이며 무엇인지 그들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감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 그가 은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서 레위의 자손을 정결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정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옛해와 같이 여호와께 즐거운 것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갈 것이며, 점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삯을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의 권리를 굽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였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고 복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넘치도록 하게 하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삼키는 자를 꾸짖어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서 포도나무가 때 이르기 전에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라기 3:1-11.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방법도 변하지 않으신다. 말라기서에서 십일조와 관련해 언급된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든, 십일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려고 "창고"로 가져와야 한다. 그 사실은 "창고"가 무엇인지와, 첫째 천사의 운동에서 윌리엄 밀러가 상징한 양식, 곧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먹게 될 양식을 예표한 그 양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함을 요구한다. 그 양식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와 "이슬"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랑비 같고, 풀 위에 쏟아지는 소나기 같으리라. 내가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돌릴지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는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1-4.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말을 정말 그대로 의미했는가? 그는 실제로, 엘리야 운동과 메시지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 "내 말이 없으면 이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인가? 엘리야가 자신의 말이 있을 때에만 내린다고 말한 그 "비"는, 말라기가 축복으로 약속하는 "비"와 일치하는가?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제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겠느냐? 말라기 3:10.

그리고 "제사장"의 성별되지 않은 "제물"의 "저주"와 이미 벌어진 "십일조"의 오용은 또한 "일곱 번"의 "저주"를 나타내는가?

2023년 7월 말, 우리는 '하박국의 표들'이라 불리는 연구 시리즈에 담긴 메시지를 사실상 되풀이하는 글들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제시에서 달라진 점은 2020년 7월 18일 이후 주님께서 이전의 가르침들 가운데 일부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심오해 보이는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전에 완수하라고 맡겨졌던 일과는 개인적으로 동떨어져 있었고, 그것에 관여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2020년 7월 19일부터 나는 전날의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그 최악스러운 예측과 그 끔찍한 여파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2023년 7월, 나는 하나님의 셋째 천사 운동의 지도자로서 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20년 7월 이후 내가 깨달아 온 것을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나는 2020년 7월 18일의 죄 이후 내게 밝혀진 것을 글로 남기고, 내가 영면에 들기 전에 그것을 공개 기록으로 남겨 두기로 결심했다.

7월 이후 석 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 글들을 따라 읽고 있는 나라가 7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일부는 틀림없이 불순한 목적과 의도로 따르고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글들을 지구상의 모든 주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프로그램을 곧 가동하려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70여 개국이 오직 영어로만 이 진리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 곳곳의, 이 진리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일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제공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말라기의 '창고'가 2023년 7월부터 이 글들을 통해 전해져 온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3장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역을 지탱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자신을 헌신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멸망해 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치열한 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보고 깨닫기만 한다면!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큰 개혁 운동의 광경들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치유되었고,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다. 위대한 오순절의 날 이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중보의 영이 보였다. 수백 수천 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이는 모습이 보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들이 찢림을 받았고, 참된 회심의 영이 나타났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를 위해 문들이 활짝 열렸다. 세상이 하늘의 영향으로 밝아진 듯했다. 하나님의 참되고 겸손한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 나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들었고, 1844년에 우리가 목격했던 것과 같은 개혁이 일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회심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도록 자원 헌금이 요청되었을 때, 일부는 이기적으로 세상의 재물에 집착했다. 이 탐욕스러운 자들은 믿는 이들의 무리에서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해 있으며, 성령의 감화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신속히, 줄 위에 줄, 교훈 위에 교훈을 더하여 전해야 한다. 사람들은 머지않아 중대한 결정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올바른 편에 분별 있게 설 수 있도록 진리를 이해할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주께서는 유예의 때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백성에게 일하라고—간절히 또 지혜롭게 일하라고—부르고 계신다." 증언, 제9권, 126쪽.